문화국가의 법적 기초

崔鍾庫

서울대 교수 · 法思想史

금년에 문화부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헌법 前文의 문화주의 원칙을 굳이 재인용하지 않더라도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위하여는 두가지 요소, 즉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각종 문화법규들이 잘 정비되었느냐는 점과, 둘째로 그 법률들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현실이 과연 '문화적'인가 하는 점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文化法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상론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비단 문화법의 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法域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해방후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不여유로 문화법의 영역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왔다는 사실이다. '문화'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러 설명이 있듯이 문화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는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법제처에서 낸 법령집의 「문화 · 공보」편에는 70여개의 법령이 실려 있다. 이 적지 않은 양의 법령들이 제정된 배경,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文化法學의 과제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법학계에서는 그리 높지 못하여 왔으나 90년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성장, 사회적 성숙을 배경으로 문화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출판 · 도서관의 문제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생각해보면 출판문화는 도서관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데, 도서관의 소관부처 문제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도서관법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나라의 도서관제도는 근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주가 되고 그에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인지 대학 · 학교도서관을 위주로 한 두루뭉실한 도서관법으로 입법되어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입법으로 '공공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법'을 따로 분리,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문교부에서 관할하고, 문화국가를 표상하기에 부끄러운 공공도서관의 피폐현상을 지양할 법적 조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업무는 출판과 직결되어 문화부에서 관장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문화정책과 문화법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문화관계의 행정이 독립되기 전과는 달리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칫하면 종래와 별반 차이없는 행정편의주의를 답습하기 쉽고 더욱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법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각국의 법제도를 광범하게 참고하면서 학자들과 문화계인사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그때의 어느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문화의 制度化'를 위하여 법적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개발도상국가'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을 문화에 적용시켜볼 때 우리나라를 '문화(개발)도상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문화국가임을 자처해도 괜찮을까? 마음같아서는 올림픽도 치루어낸 문화국가임을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주변현상과 심부를 들여다 보면 스스로 문화국가임을 공언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문화국가의 법적 기초를 이런 측면에서 튼튼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이다.

출판저널

1990년 2월 20일 제56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표지인물 2 비로소 앞당겨질 '文化의 世紀'
李御寧 초대 문화부장관에게 듣는다

초점 4 출판광고, 대담하고 재밌어졌다

얼굴 5 出協회장에 재선출된 權炳壹씨

저자인터뷰 6 「獨立運動大事典」 펴낸 李康勳옹

출판화제 7 다양하게 선보이는 革命家傳記들

15 소련이해의 '新思考' 이끈다

서평 8 韓琰煥 「国家発展과 行政」—姜信澤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裵慶淑
9 케언스 「역사철학」—金熙俊
야콥슨 「일반언어학이론」—金芳漢
10 바이에 「20세기 세계의 미학」—金文煥
김주연 「문학과 정신의 힘」—성민엽
11 정한용 「민족문학주체논쟁」—구모룡
황충상 「뼈있는 여자」—전영태

문학시론 12 대표작선집의 '대표성' 믿을 만한가/이남호

집필중 13 장편 「불의 얼굴」—임철우

신간화제 1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한국의 성과과 봉수」

18 치올코프스키의 「성자에서 민중으로」—朴海鉉

연재기획 16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0
해방전후 正音社 주변

이 책 그 사람 20 「떠돌이의 노래」 펴낸 김윤배씨
「베스트셀러」 펴낸 염재웅씨
21 「꼽추네 사랑」 펴낸 이경자씨
「생활과학문고」 펴내는 탁명식씨

세계의 추천도서 22 알파벳順으로 구성된 장서목록—李重漢
한스 노사크의 화려한 지적 발상

컬러서가 24 편집가 김형윤씨의 서가

해외문화 26 작가의 개인적 삶과 프라이버시

세계의 출판 27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의 비망록 · 외

독자서평 28 성종대/강호경/반칠환/김호성

30 신간안내

38 200자안내/창간호/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임영균